





# 건축물 침입에 이용되는 침입수법 및 도구의 유형화 연구

박현호\* · 조준택\*\*

## 〈요 약〉

본 연구는 건축물에 범죄예방설계가 도입되는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활성화될 방법하드웨어 개선사업이 증거에 기반하여(evidence-based) 수행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상물 강화(target hardening)에 초점을 두고 침입범죄의 수법과 도구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을 통해 침입수법에 대한 통계자료 구축방식의 개선, 침입수법에 대한 형사사법기관과 방범산업계, 관련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공유 및 협력 강화, 지역주민 대상으로 침입수법에 대한 교육 등 범죄예방 안전교육 활성화와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안전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주요 침입구인 출입문, 창문, 창살 등 방법하드웨어의 침입저항 성능시험 연구, 성능에 대한 표준 및 인증체계에 관한 연구, 방법하드웨어의 개선과 범죄율과의 관계 관한 연구 등 다양한 후속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침입범죄, 침입수법, 침입도구, 대상물 강화, 범죄예방환경설계

\*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범죄학 박사 (제1저자)

\*\* 경찰대학 연구지원실 연구원 (교신저자)

목 차
-----

- |                                                                       |
|-----------------------------------------------------------------------|
| I. 서 론<br>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br>III. 연구설계<br>IV. 분석결과<br>V. 논의 및 결론 |
|-----------------------------------------------------------------------|

## I. 서 론

최근 안타깝게 발생된 세월호 참사는 우리사회가 안전이라는 가치에 대하여 얼마나 소홀히 인식해왔으며 그러한 결과가 시민의 행복을 훼손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이러한 비용을 치르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사회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나 노력이 미흡했으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적인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같은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 수준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는데 이는 최근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치권이 여야 구분없이 지역개발, 교육, 복지 공약보다도 안전에 관한 공약을 최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sup>1)</sup> 안전도 여러 측면이 있는데 세월호 참사로 인해 해상안전이 부각되었지만, 범죄로부터의 안전도 절대 간과될 수 없는 부분이며, 그리하여 정치권도 범죄예방과 관련된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sup>2)</sup>

그 동안 우리 사회는 주로 경찰 등 정부기관 중심으로 범죄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많았다. 하지만 현대사회에 들어서 범죄문제에 정부기관의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며 정부기관과 지역주민을 포함한 시민사회와 민간부문 등 다양한 주체와

1) 與野 지방선거 공약 핵심은 '안전', 뉴시스 2014. 5. 13 기사

2) 여야, 지방선거 10대 공약발표 ...세월호 대책 눈길, 뉴스1 2014. 5. 11 기사

협력해야 보다 효과적으로 치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협력치안 관련 선행연구(석정호, 2010)는 지적하고 있다.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국가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치안 관련 여러 주체의 협력적인 활동과 더불어 민간경비 등 지역주민의 안전확보에 대한 자구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자구노력의 필요성은 국가 공식통계를 살펴보아도 알 수 있다. 2012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2009년 112신고접수 통계를 분석한 결과 112신고 접수 후 범죄현장에 도착한 6,334,272건 중에서 3분 이내에 도착한 사건은 3,645,442건으로 57.5%에 불과하였다. 같은 통계에서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한 사건은 1,896,623건(29.9%), 10분 이내는 700,804건(11.1%)로 나타났다. 즉 범죄관련 112신고 중 약 40%가 3분 이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골든타임(golden time)의 중요성이 나타났지만, 가장 대표적인 유형의 범죄인 침입범죄에도 사실상의 골든타임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방범창이 3분 이상 견딜 때는 75%, 5분 이상 버틸 때는 90%가 침입을 포기한다며 방범창만 튼튼한 것으로 바꾸어도 침입범죄의 상당부분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박현호, 2013). 112신고를 해도 경찰이 40% 가까운 사건에 3분 이내 출동이 어렵다는 것을 볼 때, 국가에만 치안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은 지역주민에게는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민간경비의 경우 경제적 비용 등의 이유로 지역주민들의 대다수는 선택하기 힘든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의 자구노력의 상태는 상당히 취약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에는 이러한 상황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는데, 범죄예방을 위하여 공동주택 등 일정한 용도·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범죄예방 기준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2014년 5월 28일 공포되어 올해 11월 29일부터 시행되도록 한 것이다.<sup>3)</sup> 이와 관련 2013년 1월부터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으며 올해 11월에는 구체적인 세부기준으로 강화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의 건축법이 시행되면 지역주민의 안전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역주민의 높은 안전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이 보완되기 위해서는 우선 건축물을 대상으로 침입하는 수법에 관한 연구 등이 사전적으

3) “건축물 설계시 범죄예방기법을 반영하고, 소규모 주택도 층간소음 분쟁 해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4. 5. 27

로 수행되어 그러한 과학적인 증거에 기반한 정책(evidence-based policy)이 시행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증거에 기반한 침입범죄 예방정책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주택 등의 안전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출입문과 창문, 유리 등 방법하드웨어를 대상으로 한 침입범죄의 수법과 사용되는 도구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침입범죄의 수법에 관한 공식통계 등 현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침입범죄를 담당하는 형사 등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해 그 동안 시도되지 않은 침입범죄 수법과 도구 등에 대한 분류를 시도하고 도구와 수법을 연계하여 침입범죄의 수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의 결과가 건축물 설계 담당자와 방법하드웨어 산업계 담당자와 적극적인 공유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정책적으로 필요성이 매우 높은 작업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산업계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이러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자구노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의 범죄예방 수준이 제고될 수 있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앞서 살펴본 것처럼 건축물에 범죄예방설계를 도입하는 것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활동에 해당된다. CPTED는 건물이나 도로의 물리적 환경의 설계에 의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으로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방법활동과 통합적인 방법환경을 형성하는 것이다(이상원, 2005).

본 연구의 초점은 침입수법을 체계적으로 유형화 하는 것인데, 이러한 작업은 궁극적으로 출입문이나 창문 등 방법하드웨어를 여러 침입수법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강화(target hardening)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범죄대상의 강화는 아래 <표 1>과 같이 범죄기회를 감소시키기 위해 시건장치나 경보장치 등을 사용함으로써 범죄목표물의 물리적 안전성을 증대시키려는 방법(김대권, 2010)으로서,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국외연구로서 Cornish와 Clarke(2003)는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에 기반하여 범죄기회 감소를 위한 5가지 체계를 정립하고 이러한 체계에 따른 25가지의 구체적인 예방기법을 제시하였는데, 대상물 강화는 범행에 필요한 노력을 증가시키

는(increase the effort) 체계에 포함되며, 그 예로 은행강도 예방용 스크린 설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포장, 자동차 도난 경보장치 등을 들고 있다.

〈표 1〉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직접적인 수법	대상물의 강화	접근의 통제
	출입구, 창 의 열쇠, 문, 유리 등을 강화하여 침입을 방지함	전용정원의 주변에 주의 기울이기, 진입로를 하나로 하여 침입경로를 제어함
간접적인 수법	자연적 감시의 확보	영역성의 확보
	외부조명 개선, 외부안전 확보 등에 의한 옥외, 주인의 눈에 잘 띄는 환경의 확보	주택, 주변의 유지관리 상태 향상, 주민의 옥외교류 촉진 등으로 외부인의 침입이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것

※ 자료: 이상원(2009)에서 인용

이러한 대상물 강화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그 전제인 범죄자들이 침입을 하는 방법, 즉 침입범죄의 수법에 주목해야 하며 범죄자들의 주로 활용하는 침입구와 침입통로를 확보하는 방법, 그리고 침입통로를 확보하는데 사용되는 도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선행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신재현(2010)은 침입절도 범죄의 특징 중의 하나로 전문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같은 연구에 따르면, 침입절도의 경우 물리적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곳을 침입하기 위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며, 실제로 대검찰청 통계 등에 따르면 일반인들이 생각하기도 어려운 지붕이나 비상구를 통해 침입하거나 잠금장치를 파괴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의 비율도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실태를 볼 때 침입범죄의 수법과 도구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은 높다고 하겠다.

그러나 국내외에서 침입범죄의 수법이나 도구에 초점을 둔 연구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 침입범죄와 관련된 국내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주로 침입절도의 범행대상 선정 방식, 침입절도범의 행동특성 등 침입범죄가 어떠한 원인과 형태로 행해지는지에 대하여 분석한 연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강용길·조준택, 2010; 김대권, 2010; 신재현, 2010; 김대권, 2010; 이상호, 2007 등). 주요 연구들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면 공식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침입절도 범죄의 발생장소, 침입구와 침입방법 등을 분석하거나(신재현, 2010; 주일엽·조광래, 2009; 이상호, 2007), 공식통계 분석에 추가하여 수용 중인 침입절도범을 대상으로 범행선택의 위험성, 범행의 시간적·계

절적 요인, 장소 및 지역적 특성, 음주·공범여부 등 범죄관련 특성을 조사하여 분석한 연구(김대권, 2010)가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침입절도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침입구 주변에 비상벨이나 경보장치, 잠금장치 등을 설치하거나(이상호, 2007) 디지털 도어록 설치, 가스배관 주변 감지센서, 창문열림 경보기 설치(신재현, 2010) 등과 같은 물리적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침입범죄의 수법이나 도구에 대한 논의가 포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공식통계에 수록되어 있는 침입범죄 관련 통계를 분석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인데 후술할 침입수법과 도구에 대한 공식통계의 분류방식의 불충분함 등의 이유로 대상물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그리하여 선행연구 중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관련이 있는 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강용길·조준택(2010)은 침입절도에 관한 경찰청 공식통계, 침입절도범의 피의자 신문조서, 침입절도를 취급한 일선 형사들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여 침입절도의 발생시간 및 장소 등 발생양태, 범행대상 물색방법 및 선택기준, 착의상태, 범행소요시간, 침입경로 및 도주로, 강력범죄를 유발하는 공격성 자극요소 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피의자 신문조서 분석결과, 침입절도를 위한 범행도구로서 대형 드라이버나 빠루 등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형사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 범죄에 소요되는 시간은 사건마다 다르나 5-10분 이내라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법창의 경우 일반인들은 효과가 있다고 믿고 있지만 침입절도범들은 드라이버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미닫이로 된 문의 틈에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뜯어내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방법창을 쉽게 무력화 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방법창은 범행의 장애요소 아니며, 범행을 예방하기 위한 대상물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또한 박병식(1997)은 침입범죄 절도의 동향과 대책을 소개한 연구인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연구의 문제의식과 연구에서 기술된 일본경찰청의 침입범죄에 대한 통계 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여전히 많다고 판단된다. 같은 연구에서 1979년부터 1992년까지 인지한 일본경찰청이 인지한 주택대상 침입절도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를 소개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1979년부터 침입방법 및 자물쇠 등의 통계를 취합하였고 아래 <표 2>와 같이 침입절도 수법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유형화 하고 있어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표 2〉 침입방법에 대한 사례

침입방법	알루미늄 샷시 창문의 자물쇠를 부수고 침입 욕실에 난 유리창을 돌로 깨부수고 침입 부엌 유리창에 셀로판 테이프를 붙이고 돌로 깨부수고 침입 옥상에서 로프를 이용하여 창문으로 침입 흙통을 통해 베란다로 이동하여 유리창을 깨부수고 침입 욕실의 창틀을 드라이버로 부수고 실내에 침입 화장실 창문이나 욕실의 샷시 창문을 들어올리고 침입
------	-----------------------------------------------------------------------------------------------------------------------------------------------------------------------------------------------------------

※ 자료 : 박병식(1997)에서 인용

이러한 침입방법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관문·출입문·창문·기타 개구부 등 침입구별 안전대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현관문에는 자동도어록이나 보조자물쇠를 설치하고, 출입문의 경우 유리나 알루미늄 재질은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베란다나 거실의 창문의 경우 합성유리 또는 복층유리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대상물 강화와 관련된 방법의 일정한 한계도 지적하면서 추가적으로 방범벨이나 센서 등 기계경비 대책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향후 국민의 안전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하드웨어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학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범죄인 건축물 침입을 통한 절도범죄에 주목하여 범죄수법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하고 분류하는 것을 시도한다. 침입수법과 도구에 대한 논의의 외연을 확장하고 도구사용과 연계된 침입수법의 체계적인 분류를 시도하기 위해 선행연구와는 다른 관점에서 침입범죄에 관한 기존 공식통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이와 더불어 침입범죄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일선 형사와 경찰청 소속 형사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침입범죄 수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유형화하고 체계화하여 향후 이러한 침입범죄수법과 도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하드웨어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는 것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 Ⅲ.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의 침입수법에 대한 체계적인 유형화를 위해 두 방향의 접근방법을 취하였다. 우선 객관적 자료인 침입범죄에 대한 공식통계를 선행연구의 방

식과는 달리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침입범죄의 수법과 관련한 국내 통계의 문제점을 도출하는 한편, 공식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침입수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도출하고 분류하기 위해 침입범죄를 취급하는 경찰관에 대한 심층면담 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 1. 대검찰청 통계자료 분석

우선 침입절도 범죄의 전반적인 양상을 파악하고 침입수법과 도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에 수록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최근 5년간 침입절도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내용은 침입절도의 발생건수, 침입방법, 침입구, 침입장소, 침입에 사용된 도구 등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수행하였고, 공식통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 2. 경찰관에 대한 심층면담조사

양적자료인 공식통계에서는 침입수법이 매우 간소하게 분류가 되어 있어서 침입수법의 전반적인 양상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 방법하드웨어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침입수법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보다 구체적인 수법을 파악하기 위해 침입범죄를 취급하는 경찰청 및 경기경찰청의 형사 15명에 대하여 2011년부터 2012년까지 1년간 침입범죄의 도구와 수법에 대한 심층면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내용은 침입범죄의 대상물에 대한 침입수법과 도구, 사용방법 및 휴대에 따른 도구, 주거 및 상업시설 침입범죄수법 등으로 본 연구의 연구설계를 정리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본 연구의 연구설계

구분	내 용	
통계분석	대상기간	2008년~2012년(5년)
	대상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수록된 침입절도범죄 통계
	분석내용	침입절도 발생건수, 침입방법, 침입구, 침입장소, 침입도구
면담조사	대상기간	2011년~2012년(1년)
	대상자료	경찰청 및 경기청 침입범죄 담당 경찰관(15명) 면담조사
	분석내용	대상물에 대한 침입수법과 도구, 사용방법 및 휴대에 따른 도구, 주거 및 상업시설 침입범죄수법 유형화

## IV. 분석결과

### 1. 침입절도 범죄의 통계분석

#### 1) 침입절도 발생건수

침입절도의 수법에 관한 본 연구를 위해서 우선 침입절도 범죄의 전반적인 현황과 수법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 수록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최근 5년간 침입절도와 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전체 절도범죄건수는 최근 5년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2008년 기준으로 2012년에 약 23%가 증가하였으며, 침입절도의 경우 2008년 기준으로 2009년에 증가한 후 2011년까지는 감소경향을 보이다가 2012년에는 2008년 기준으로 27%가 다시 증가하여 최근에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침입절도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약 33%에서 2011년 28%로 감소하다가 2012년에는 34%로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연도별 침입절도 발생건수 및 절도범죄 내 비율

비율	절도 전체	침입절도	침입비율
2008	223262(100)	73603(100)	33.0%
2009	256681(115)	81036(110)	31.6%
2010	267994(120)	80083(109)	29.9%
2011	281537(126)	77335(105)	27.5%
2012	274660(123)	93774(127)	34.1%

※ 주 : ()은 2008년 기준 각 연도의 지수

#### 2) 침입방법

다음으로 침입방법과 관련하여 대검찰청 통계는 ‘문단속 없음’, ‘시정장치 부수고’, ‘문 부수고’, ‘시정장치 열고’, ‘유리 깨고’, ‘기타’의 6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최근 5년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침입방법 중 문단속이 없는 경우의 비율은 2008년 37.7%에서 2012년 25.1%로 상당히 감소하였고, ‘시정장치 부수고’의 경우에도 2008년 14.6%에서 2012년 9.3%로 감소한 나타난 반면, ‘문 부수고’, ‘시정장치 열고’, ‘유리 깨고’ 등의

수법과 기타 수법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면 문단속이 없는 경우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점은 주택이나 시설주체가 최소한의 지구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문단속을 하는 대신 침입범죄자가 문이나 시정장치 등을 부수거나 여는 방법을 통해 침입하는 경우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보다 강화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sup>4)</sup>

〈표 5〉 연도별 침입절도에서의 침입방법

침입 방법	문단속 없음	시정장치 부수고	문부수고	시정장치 열고	유리깨고	기타	합계
2008	11915 (37.7)	4620 (14.6)	605 (1.9)	3519 (11.1)	972 (3.1)	9986 (31.6)	31617 (100)
2009	17900 (34.6)	8608 (16.7)	787 (1.5)	5927 (11.5)	1783 (3.4)	16684 (32.3)	51689 (100)
2010	6384 (33.8)	3093 (16.4)	584 (3.1)	2563 (13.6)	646 (3.4)	5641 (29.8)	18911 (100)
2011	849 (22.0)	323 (8.4)	225 (5.8)	588 (15.2)	237 (6.1)	1645 (42.5)	3867 (100)
2012	5812 (25.1)	2144 (9.3)	786 (3.4)	3097 (13.4)	1491 (6.5)	9786 (42.3)	23116 (100)

### 3) 침입구

다음으로 최근 5년간 침입구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침입구 중 출입문이 약 50%에 육박하고 창문의 경우 약 20% 내외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어 침입절도의 대부분은 출입문과 창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5년간의 경향을 살펴보면 침입구 중 출입문과 창문의 비율은 최근 들어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4) 대검찰청의 통계 중 2011년 것의 통계는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았을 때 오류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분석에서 제외할 필요성도 있다.

〈표 6〉 연도별 침입절도에서의 침입구

침입구	출입문	창문	담	지붕	비상구	기타	합계
2008	16802 (53.1)	5865 (18.6)	846 (2.7)	16 (0.1)	152 (0.5)	7936 (25.1)	31617 (100)
2009	26475 (51.2)	10797 (20.9)	942 (1.8)	13 (0.0)	159 (0.3)	13303 (25.7)	51689 (100)
2010	10533 (55.7)	4076 (21.6)	420 (2.2)	4 (0.0)	122 (0.6)	3756 (19.9)	18911 (100)
2011	1829 (47.3)	719 (18.6)	101 (2.6)	1 (0.0)	23 (0.6)	1194 (30.9)	3867 (100)
2012	11190 (48.4)	3937 (17.0)	672 (2.9)	11 (0.0)	198 (0.9)	7108 (30.7)	23116 (100)

#### 4) 침입장소

또한 침입장소를 보면 빈집과 상점, 사무실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집의 비율은 2008년 약 50%에서 2012년 약 35%로 상당히 감소하고 상점도 2008년 19.7%에서 2012년 17.5%로, 사무실의 경우도 2008년 8%에서 2012년 4.5%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난 반면, 기타 발생장소의 비율은 2008년 17.6%에서 2012년 35%로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연도별 침입절도에서의 침입장소

장소	빈집	사무실	공장	상점	숙박업소	기타	합계
2008	36406 (49.5)	5867 (8.0)	2231 (3.0)	14527 (19.7)	1596 (2.2)	12976 (17.6)	73603 (100)
2009	37988 (46.9)	5601 (6.9)	1634 (2.0)	18115 (22.4)	1795 (2.2)	15903 (19.6)	81036 (100)
2010	36972 (46.2)	5698 (7.1)	1671 (2.1)	15955 (19.9)	1132 (1.4)	18655 (23.3)	80083 (100)
2011	34849 (45.1)	5225 (6.8)	1789 (2.3)	15329 (19.8)	1892 (2.4)	18251 (23.6)	77335 (100)
2012	32908 (35.1)	4266 (4.5)	3031 (3.2)	16426 (17.5)	1567 (1.7)	32895 (35.1)	93774 (100)

## 5) 침입도구

마지막으로, 침입범죄를 위한 침입도구와 관련하여 대검찰청 공식통계는 도구를 총기, 모의총기, 칼, 도끼, 낫, 유리병, 돌, 몽둥이, 공구, 줄, 마취제, 독극물, 컴퓨터로 분류하고 있다. 도구를 소지하지 않는 경우가 전체의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구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공구와 돌, 칼, 줄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연도별 범행도구

범행도구	총기	모의총기	칼	도끼	낫	유리병	돌	몽둥이
2008	2	2	541	9	27	28	685	114
2009	10	2	1189	5	25	154	1365	394
2010	6	3	559	2	19	41	940	65
2011	8		445	3	22	9	608	38
2012	1		336	4	18	6	639	44
범행도구	공구	줄	마취제	독극물	컴퓨터	기타	소지무	합계
2008	13672	741	8	4	65	12196	85309 (75.2)	113403
2009	23088	1318	2	9	49	16575	133107 (75.1)	177292
2010	15098	884	2	3	20	14502	113619 (77.9)	145763
2011	9534	325		2	6	14187	87676 (77.7)	112863
2012	8454	220		3	5	12954	84510 (78.8)	107194

## 6) 소결

위와 같이 최근 5년간 국내 침입범죄에 관한 통계를 살펴보면 침입절도 범죄의 발생건수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빈집의 경우나 문단속이 없는 경우는 최근 감소한 반면, 시정장치 등 방어를 뚫고 침입하는 경우의 빈도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침입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어기제의 향상을 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침입범죄의 통계와 관련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통계정보가 구체적이어서 하나 대검찰청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분류항목 중 기타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점이다. 침입범죄 관련 주요 통계에서 기타의 비율이 30~40% 가까이 될 정도로 높은 것은 사실상 현행 침입범죄에 대한 통계의 수집 및 기록체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리하여 침입수법의 구체화나 분류 측면에서는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침입절도의 발생 양태에 비하여 통계의 수집체계를 너무 단순화하여 설정한 분류체계에 맞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기타로 분류하는 맹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도대체 범죄자들이 어떻게(how) 시정장치나 문을 부수거나 여는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어떻게 하면 범죄자들이 시정장치나 문을 부수거나 열지 못하는지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sup>5)</sup> 이러한 점은 통계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다양한 측면의 정보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으로서 침입범죄에 대한 통계수집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하게 뒷받침한다고 하겠으며, 침입수법에 대한 구체화와 체계적인 분류를 시도하는 본 연구의 의의도 이러한 점에 있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침입범죄의 구체적인 양상과 방어기제를 어떻게 뚫는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앞서 살펴본 박병식(1997)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본경찰청의 통계수집방식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 2. 건축물 침입수법과 도구의 유형에 대한 분석

앞서 공식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본 침입수법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침입범죄 수법과 도구의 분류를 위해 침입범죄를 취급하는 경찰청 및 경기경찰청의 형사 15명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내용은 <표 9>부터 <표 16>까지 요약·정리되어 있다. 면담조사 항목은 크게 건축물 침입에 사용되는 침입범죄 수법의 유형, 대상물에 따른 침입수법 유형과 이에 대한 대응방법, 수법과 대상물에 따른 침입도구에 대한 항목 등으로 구성되었다.

5) 물론 범죄수법 관련 정보를 일반인도 볼 수 있는 통계자료에 수록하기 어렵다는 점은 있지만, 그러한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 1) 침입수법 유형

앞서 살펴본 박병식(1997)의 연구와 같이 건축물 침입에 사용되는 침입범죄 수법에 대하여 면담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법의 유형은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1) 건물의 구조를 악용하여 침입하는 방법, 2) 잠금장치를 물리력으로 열고 침입하는 방법, 3) 잠금장치를 기술적으로 열고 침입하는 방법, 4) 빈집 유무를 확인하고 침입하는 방법, 5) 신문을 사칭하여 침입하는 방법으로 분류된다. 5가지 유형에 따른 침입수법에 대하여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정리한 결과는 아래 <표 9>와 같다. 건물구조를 악용하는 것은 우수관이나 가스배관, 옥상, 창문에 인접한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침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잠금장치에 대한 물리력은 빠루나 장도리, 드릴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잠금장치에 대하여 특수스프레이 등 각종 기구나 장비를 사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외에 가장 자주 발생하는 침입범죄 유형인 빈집에 대한 침입의 경우 초인종을 누르거나 신문이나 우유의 배달상태 등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주로 강도범죄에 활용되는데 보다 대담한 범행수법으로 배달원이나 검침원 등으로 신분을 사칭하여 침입하는 경우도 주요한 유형 중 하나로 조사되었다.

<표 9> 주거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침입범죄 수법

구분	수법
건물의 구조를 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관이나 가스배관을 타고 배란다, 욕실, 주방 창 등으로 침입하는 수법</li> <li>• 아파트 옥상에서 로프를 이용하여 고층 세대에 침입하는 수법</li> <li>• 창문에 인접한 나뭇가지 등을 발판으로 삼아 침입하는 수법</li> </ul>
잠금장치를 물리력으로 열고 침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루발못뿔이(일명 빠루)나 장도리 등을 이용, 현관문을 강제로 뜯는 수법</li> <li>• 도어락 옆에 드릴로 구멍을 낸 뒤 철사를 넣어 안쪽에서 열림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는 수법</li> </ul>
잠금장치를 기술적으로 열고 침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구나 장비 등을 이용해서 기술적으로 현관문 잠금 장치를 여는 수법</li> <li>• 디지털도어락의 버튼부분에 특수 스프레이를 뿌려 자주 누르는 번호를 알아 낸 뒤 침입하는 수법</li> </ul>
빈집 유무 확인하고 침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낮 아파트 단지 등을 돌며 초인종을 눌러 본 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는 수법</li> <li>• 신문이나 우유가 현관문 앞에 쌓인 빈집을 주로 노리는 수법</li> <li>• 단독주택이나 연립, 아파트 저층 세대의 창문에 돌을 던져서 인기척을 확인하여 반응이 없는 경우 침입하는 수법</li> </ul>
신분 사칭하여 침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달원, 검침원, 공무원 사칭하여 문을 열어주면 침입 후 강도로 돌변하는 수법</li> </ul>



## 2) 침입 대상물에 따른 수법유형

침입 대상물에 따른 유형분류를 위해 가장 많은 침입이 이루어지는 출입문과 창문에 대한 주요 침입수법의 분류를 시도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 <표 10>과 같다. 출입문에 대해서는 전동드릴로 뚫거나 빠루로 잠금장치를 파괴하거나 디지털도어락의 경우 전자충격기를 사용하거나 특수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잠금장치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문의 손잡이를 제거하거나 우유투입구를 사용하여 침입하는 방식도 있었다. 한편, 창문을 통한 침입의 경우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도구인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창과 창의 틈을 지렛대 원리를 사용하여 드라이버로 벌려 잠금장치를 무력화 하여 침입하거나 창의 틈을 발로 차서 무력화 하는 경우도 있고, 쉽게는 유리로 창을 깨서 침입하는 경우도 있었다. 고급기술이 반영된 특수한 예로 방어장치로 센서가 있는 경우에는 센서를 피해 외벽에 구멍을 뚫어 갈고리 등으로 상가 안의 물건을 훔치는 경우도 있었고, 적외선 센서 밑의 땅을 파서 침입하는 경우도 있었다.

<표 10> 주택 및 상가시설에 대한 침입범죄 유형

구분	침입 통로	침입 방법
주택	출입문을 통한 침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동드릴로 문을 뚫어서 침입</li> <li>- 노루발못뿔이로 출입 잠금장치를 파괴하여 침입</li> <li>- 우유투입구를 통해 잠금장치를 열어 침입</li> <li>- 전자 도어락은 전자충격기를 이용 잠금장치를 무력화하여 침입</li> <li>- 문을 들어 올려 경첩에서 문을 빼내어 침입</li> <li>- 손잡이를 바이스플라이어로 고정한 후 뽑아내어 침입</li> <li>- 고층일 경우 아파트의 옥상에서 로프를 이용하여 침입</li> <li>- 중앙창을 이용하여 다용도실이나 부엌, 발코니 창으로 침입</li> <li>- 디지털 잠금장치의 버튼부분에 특수 스프레이를 뿌려 자주 누르는 번호를 알아낸 뒤 침입</li> </ul>
	창문을 통한 침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과 창의 틈을 드라이버로 벌려 침입(창의 프레임이 플라스틱임)</li> <li>- 밖에서 유리를 통하여 잠금장치의 기계 유무를 확인 후 침입</li> <li>- 유리를 깨고 침입</li> <li>- 창의 프레임을 발로 차서 잠금장치를 무력화하여 침입</li> <li>- 드라이버로 큰 창과 창을 받치는 프레임을 지렛대원리로 들어 올려 침입</li> <li>- 중앙창을 이용하여 다용도실이나 부엌, 발코니 창으로 침입</li> </ul>
상가	특수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리문의 특성상 잠금장치와 유리를 노루발못뿔이로 이격시켜 잠금장치를 무력화하여 침입</li> <li>- 유리문의 손 끼임 사고를 막기 위한 틈으로 잠금장치를 무력화하여 침입</li> <li>- 상가안의 동작/온도 센서를 피해 외벽에 구멍을 뚫어 갈고리등의 도구를 통하여 안의 물건을 훔침</li> <li>- 적외선센서의 밑 부분의 땅을 파서 침입하는 방법</li> </ul>

※ 주 : 상가의 경우 출입문 및 창문을 통한 침입방법은 기본적으로 주택과 동일

### 3) 침입수법에 대한 대응방안

이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형사들이 제시한 것들을 정리하면, 빠루(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한 침입에 대한 대응으로 난간에 압력을 인식하는 장치를 통해 난간에 일정수준 이상의 하중을 인식하여 경보가 울리게 하는 장치를 통하여 침입에 대응할 수 있으며, 유리문의 경우 유리와 유리사이에 있는 일정거리의 유격사이에 고무나 기타 실리콘 등을 이용한 도어안전보강제를 설치하여 유격을 없애는 방법을 통해 침입에 대응할 수 있는 한편, 유리문에 위, 아래와 가운데에 잠금장치가 있는데 메인잠금장치를 잠그면 위, 아래 등이 한 번에 시건 될 수 있는 장치를 통해 침입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상가 벽(가건물)의 외부를 뚫어 중요 기자재 등을 훔치는 수법에는 기자재를 캐비닛 안에 적재하거나 벽과 이격시켜 적재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표 11〉 주거시설 및 상업시설 침입범죄 유형의 공통점

침입 통로	침입 방법
침입에 대한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한 침입에 난간에 압력을 인식하는 장치를 통해 난간에 일정수준 이상의 하중을 인식하여 경보가 울리게 하는 장치를 통하여 침입에 대응</li> <li>- 상가 벽(가건물)의 외부를 뚫어 중요 기자재 등을 훔치는 수법에는 기자재를 캐비닛 안에 적재하거나 벽과 이격시켜 적재하는 방법으로 대응</li> <li>- 대부분 유리문이므로 유리와 유리사이에 있는 일정거리의 유격사이에 고무나 기타 실리콘 등을 이용한 도어안전보강제를 설치하여 유격을 없애는 방법을 통해 침입에 대응</li> <li>- 유리문에 위, 아래와 가운데에 잠금장치가 있는데 메인잠금장치를 잠그면 위, 아래 등이 한 번에 시건 될 수 있는 장치를 통해 침입하는데 어려움을 줄</li> </ul>

### 4) 침입대상물에 따른 수법과 도구의 유형분류

위와 같이 형사들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주택 및 상가에 대하여 주로 발생하는 침입범죄 수법과 침입대상물에 따른 수법의 분류를 실시하고 이러한 침입수법에 대하여 형사들이 제시한 대응방법을 살펴보았다. 이에 부가적으로 침입대상물에 따른 침입수법을 분류하고 침입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도구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기 위하여 형사들에게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를 침입대상물-침입수법-침입도구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아래 <표 12>는 침입대상물 중 출입문의 경우를 정리한 것이다.

출입문의 경우 대상물의 특성에 따라 적용가능한 침입수법이 유형화되며, 침입에 사용되는 도구도 톱이나 쇠줄 등 자르는 도구, 송곳이나 드라이버와 칼 같은 뾰족한 도구, 노루발못뽑이(빠루)와 같은 들어내는 도구, 망치와 같이 파괴하는 도구, 전자충격기나 특수스프레이와 같은 특수한 도구 등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출입문에 대한 침입수법 및 도구유형

침입 수법	수법에 따른 도구유형
부주의로 시정치 않은 문이나 창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	-
집에 있는 사람을 속여 들어가거나 험박을 통해 들어가는 것	-
판자문 등을 뜯거나 찢어버리고 들어가는 것. 유리문은 제외	망치, 정, 니퍼, 철근교정 절단기, 펜치
안으로 걸려있는 문고리를 문틈으로 철사나 카드 기타 얇은 도구를 사용하여 벗기는 것.	철사, 드라이버, 커터칼
안으로 걸려있는 빗장을 문틈으로 칼 기타 뾰족한 도구를 이용하여 찍어서 옮기는 것.	송곳, 드라이버, 칼, 가위, 커터칼
문틈으로 톱, 기타 도구를 사용하여 빗장을 자르는 것.	톱, 쇠줄, 끌, 쇠톱
문을 밀었다 당겼다 하여 덜컹덜컹하는 바람에 빗장이 부서지게 하는 것.	-
자물통이 채워진 경우 그 문 들찌귀를 잡아 빼어 문을 여는 것.	노루발못뽑이(빠루), 드라이버
자물통의 꽃이를 줄칼, 쇠톱 등으로 쓸어 자르는 것.	줄칼, 쇠톱, 톱
자물통의 꽃이를 펜치등으로 잡아 끊는 것.	펜치, 플라이어, 바이스 플라이어, 롱노우즈
자물통의 꽃이를 기구나 맨손으로 뽑든지 비틀어 제치는 것. 자물통 꽃이 구멍이 파괴되는 것.	-
자물통의 맞춘 부분을 부서 자물통을 완전히 분해 하는 것.	망치, 멩키스패너, 정
자물통의 열쇠구멍을 드라이버 등으로 파괴하고 자물통을 여는 것.	드라이버, 송곳, 클립
자물통의 열쇠구멍 언저리를 인물 등으로 파헤치고 자물통을 여는 것.	망치, 멩키스패너, 정
현관문의 경첩을 들어내어 침입하는 것.	드라이버, 노루발못뽑이(빠루)
손잡이를 바이스 플라이어등으로 뽑아 침입하는 것.	바이스 플라이어, 플라이어, 니퍼
빠루나 함석가위 등으로 아파트 문 절단	함석가위, 빠루

침입 수법	수법에 따른 도구유형
자동문을 물체로 이격시켜 자동문을 개방후 침입	작은 스틱류
우유투입구에 내시경을 투입하여 특수 제작된 얇은 스틱, 철사등으로 전자도어락의 열림버튼을 눌러 침입	틀수제작된 스틱, 전자 내시경, 철사
복도식 아파트의 개방된 문의 방범창을 절단하고 들어가는 것	함석가위, 니퍼, 철근교정절단기, 펜치, 바이스플라이어
잠겨있는 문 또는 창문을 모두 들어내는 것	드라이버, 노루발못뽑이(빠루), 드라이버
전자도어락의 비밀번호를 특수스프레이로 뿌려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것	특수스프레이
전자도어락의 전자충격기를 이용하여 침입	전자충격기

다음으로 아래 <표 13>은 창문이 침입대상물일 경우에 침입수법의 종류와 활용되는 도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창문의 경우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드라이버가 주로 사용되는 수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 노루발못뽑이(빠루)와 송곳 등도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리창이 많기 때문에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테이프 등을 사용하는 수법도 있었다. 또한 방범창을 무력화하기 위한 절단기 등도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창문에 대한 침입수법 및 도구유형

침입 수법	수법에 따른 도구유형
기물을 이용하거나 맨손, 돌 등으로 유리를 쳐서 깨는 것	망치, 돌, 멩키스패너
받침대 등을 이용하여 유리를 뜯어내는 것.	드라이버, 노루발못뽑이(빠루)
유리칼을 이용하여 유리를 잘라내는 것.	유리칼, 테이프
유리붙임대를 떼어버리고 유리를 떼는 것	드라이버, 노루발못뽑이(빠루)
유리를 녹이는 것.	용접토치
창문의 틈사이로 손을 넣어 여는 것	-
도구 등으로 창문을 여닫는 홈턱을 깎아 버리고 창문을 들어내는 것	송곳, 드라이버
아파트 창문의 크리센트의 허술함을 이용하여 일자드라이버나 공구로	일자드라이버, 장도리,

침입 수법	수법에 따른 도구유형
크리센트를 휘어 창문을 열고 침입	
기존의 방법창을 절단기로 자르고 침입	철근교정절단기
방법창의 설치시 고정나사를 제거하여 방법창 전체를 탈구	망치, 멩키스패너, 플라이어, 니퍼, 펜치
방법창의 폴대를 들어올려 그 틈으로 침입	-
방법창의 폴대를 잘라 그 틈으로 침입	철근교정절단기
시스템창호의 중간 큰 창을 발로 밀어 크리센트를 무력화 시켜 침입	-
가스 배관, 담장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열고 침입	사다리, 끈, 로프, 밧줄, 자일
열려있는 화장실 창문을 통한 침입	-
계단식아파트에서 복도의 작은 창을 이용하여 아파트의 창문을 통한 침입	-

출입문과 창문 이외에 지붕이나 가스배관 등 다른 침입구를 통한 침입범죄도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침입수법과 사용되는 도구를 분류한 결과는 아래 <표 14>와 같다. 지붕이나 천장, 가스배관 등을 통해 침입하는 경우 이동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다리나 로프 등이 사용되는 수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외에 벽을 뚫기 위해 삽, 망치, 드릴, 도끼 등을 사용하는 수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기타 침입수법 및 도구유형

침입 수법	수법에 따른 도구유형
환기구, 채광구 등에 줄 또는 망을 걸고 그것을 타고 들어가는 것.	자일, 로프 사다리, 테이프, 끈, 밧줄
아파트 등 인가의 변소등에서 천장을 타고 천장 구멍을 뚫고 들어가는 것.	장릴, 로프, 사다리, 테이프, 끈, 밧줄, 전동드릴, 드라이버, 송곳
토담등으로 뚫고 그 구멍으로 기어들어가는 것	삽
하수구 등을 이용하여 그 구멍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	삽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들어가는 것.	송곳, 망치, 드라이버, 전동드릴
벽을 뚫어 들어가는 것.	송곳, 망치, 드라이버, 전동드릴, 도끼, 멩키스패너

침입 수법	수법에 따른 도구유형
땅굴파기	삽, 줄, 철사, 갈고리
난간을 통한 침입,	끈, 로프, 사다리, 밧줄, 자일
1층방범창을 사다리로 이용해서 가스배관을 타고 2층 발코니로 침입	사다리
관자벽을 뜯어버리고 들어가는 것.	송곳, 망치, 드라이버, 전동드릴, 도끼, 멩키스패너

### 5) 침입도구의 특성에 따른 분류

한편, 그 동안 상대적으로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던 침입도구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침입도구의 특성에 따른 분류를 시도하였다. 먼저 침입도구의 사용방법에 따라 침입도구를 대소 분류하였는데, 앞서 조사된 것과 같이 침입도구를 이용하여 침입구를 파괴, 분해, 절단하거나 구부리기, 뽑기, 절단을 하여 형태를 변형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도구의 사용방법을 ‘지렛대로 활용’, ‘형태변형’, ‘두 손 사용’으로 대분류하였고 이러한 틀 안에서 사용될 수 있는 방법 유형(소분류)과 그에 적합한 침입도구 명은 아래 <표 15>와 같다.

<표 15> 사용방법에 따른 도구

도구 사용방법 (대분류)	도구 사용방법 (소분류)	도구 명
지렛대 원리	지렛대(이탈)	작은 드라이버, 큰 드라이버, 노루발못뽑이(빠루), 송곳, 갈고리
	파괴	작은 드라이버, 큰 드라이버, 노루발못뽑이(빠루), 돌
	분해	작은 드라이버, 큰 드라이버, 노루발못뽑이(빠루)
	절단	유리칼, 칼(카터칼, 유리칼, 과도칼)
형태의 변형	잡기	니퍼, 펜치
	구부리기	바이스 플라이어, 펜치, 플라이어, 롱 노우즈, 니퍼
	뽑기	바이스 플라이어, 펜치, 플라이어, 롱 노우즈, 니퍼
	절단	니퍼, 펜치
두 손의 사용	둔기	장도리, 멩키스패너, 망치, 렌치, 정, 노루발못뽑이, 삽, 곡괭이, 도끼
	자르기	철근절단기, 전지가위, 가위, 함석가위
	썰기	줄, 톱(목공), 쇠톱, 끌
	뭉기, 매달리기	줄, 로프, 사다리, 노끈, 밧줄, 테이프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은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여 연결장치나 잠금장치를 이탈시키거나 파괴나 분해, 절단시키는 것이 포함되고, 형태를 변형하는 것은 잠금장치를 구부리거나 뽑거나 절단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그리고 두 손 사용은 가장 강한 강도의 도구사용으로 두 손으로 둔기를 사용하거나 자르고 써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도구사용의 방법과 강도별로 작은 드라이버에서부터 빠루, 바이스 플라이어, 철근절단기 등 다양한 도구가 단계와 활용형태 별로 분류되었다.

다음으로 침입도구는 작은 드라이버부터 둔기, 전동공구 등 크기가 다양한데, 휴대의 간편성이 침입범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휴대성 및 크기에 따른 도구의 분류를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호주머니에 넣거나 손에 들고 다닐수 있는 작은 도구, 가방에 넣어 다니는 도구, 차량 등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기기 등 단계별로 구분한 결과는 아래 <표 16>과 같다. 작은 드라이버나 플라이어, 줄이나 칼 등은 호주머니 속에도 충분히 휴대가 가능하여 은닉이 용이한 것으로 판단되고, 침입범죄에 흔히 활용되는 노루발못뽑이(빠루)나 망치, 스패너, 삽이나 절단기 등은 이를 담을 가방이 필요한 정도로 크기가 크며, 대형 전동식 드릴이나 용접기나 엔진톱은 가방에도 쉽게 담기 어려운 침입도구(도구보다는 장비에 가까움)로서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이 필요할 정도로 크기가 상당하기 때문이 이러한 도구가 활용된 침입범죄에 대한 수사를 할 때 참고할 필요가 있다.

<표 16> 휴대성 및 크기에 따른 도구

도구의 크기 단계		도구 사용 방법/유형	도구 명
1단계	손, 호주머니 속 도구	스틱(소)	작은 드라이버(-,+), 철사
		잡기, 구부리기, 뽑기 등	바이스 플라이어, 렌치, 플라이어, 롱 노우즈, 니퍼
		썰기	줄, 톱(목공), 쇠톱, 끌
		절단	전지가위, 가위, 함석가위, 유리칼, 칼(카터칼,유리칼,과도칼)
2단계	가방 속 도구	둔기	장도리, 멩키스패너, 망치, 렌치, 정, 노루발못뽑이(빠루), 철근교정절단기, 삽, 곡괭이, 도끼
		스틱(대)	큰 드라이버(-,+), 노루발못뽑이(빠루)
		뭉기, 매달리기	줄, 로프, 사다리, 노끈, 밧줄, 테이프

도구의 크기 단계		도구 사용 방법/유형	도구 명
3단계	기기 및 장비	전동공구	전기 임팩트, 합마드릴(전동식), 그라인더
		충전공구	충전드릴
		엔진공구	엔진 톱
		에어공구 및 기타	에어임팩트, 합마드릴(에어식), 케이블 내시경, 특수 스프레이, 용접기, 용접토치, 전자충격기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침입범죄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와 공식통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경찰관들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해 침입범죄의 수법에 대한 세분화와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초점과 관련된 선행연구가 많지 않고,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석틀이 없었기 때문에 다소 시험적인 성격의 연구로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sup>6)</sup>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본 연구의 초점인 침입수법에 대하여 더욱 세분화된 분류방식을 도입한 통계자료의 구축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침입범죄에 대한 기존 통계의 분류방식이 단순하여 수집된 정보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기타로 분류된 사건의 비율이 높아 구체적인 정보가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의 통계체계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침입범죄의 실제 발생양상을 고려하고 침입범죄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어기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침입수법에 관하여 가능한 다양한 정보가 도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분류체계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둘째, 침입수법에 대해 형사사법기관과 방범산업계,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등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침입범죄의 수법에 초점

6) 침입수법의 세분화 관련 저자들의 실무경험과 심층면담에 참여한 형사들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분류하였으나, 자칫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타당도와 객관성 제고를 위해 10년 이상의 수사경험이 있는 전문형사와 법률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연구의 한계로 지적하고 후속연구의 몫으로 남긴다.



을 맞추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이 생활을 영위하게 될 건축물에 범죄예방 설계를 하거나 출입문과 창문 등에 방법하드웨어를 강화하여 침입범죄의 수법을 극복하기 위함이다. 분석결과 도출된 침입범죄의 수법을 형사사법기관만 알고 공유하지 않는다면 최근 5년간의 공식통계상에서 드러났듯이 향후에도 침입절도 범죄가 감소하지 않을 수 있다. 침입범죄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형사사법기관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러한 수법 자료를 방법산업계와 관련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협업을 통해 다양한 침입범죄 공격을 무력화 할 수 있는 방법하드웨어의 개발에 활용하여 대상물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이 계속된다면 방법산업도 발전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국민안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위해 관련기능을 경찰청을 포함한 형사사법기관에서 신설하고 방법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것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주민 대상으로 침입수법에 대한 교육 등 범죄예방 안전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국가에만 의존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그리하여 주민들도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침입범죄의 수법과 이에 대한 예방대책 등에 대하여 알고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할 수 있다면 지역의 안전수준이 보다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청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일환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침입범죄의 수법과 예방대책,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 등에 대하여 알리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주민들이 경찰의 범죄예방 및 수사 활동에만 의존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구노력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침입범죄로부터 잠재적인 피해자를 더 많이 보호할 수 있게 되고 지역사회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건축물에 범죄예방설계가 도입되면 지역주민들에게 있어서 범죄문제는 이전보다 피부로 와 닿게 될 것이며, 안전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형사사법기관은 지역주민의 이러한 관심과 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최현식·박현호(2010)에 따르면 공동주택 주민들에 대하여 CPTED 설계요소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CPTED의 설계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침입범죄의 주요 침입구로 활용되는 출입문, 창문 등 방법하드웨어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안전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 결과에 기반한 다양한 후속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 논의한 건축물 침입에 이용되는 도구별 수법유형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주요 침입구인 출입문, 창문, 창살 등에 대한 침입 저항 성능에 대한 다양한 실험연구가 필요하다.<sup>7)</sup> 또한 방법하드웨어의 성능의 평가 기준에 대하여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성능 표준에 근거하여 방법하드웨어를 인증하는 인증체계에 대한 연구가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관련 법규에 대한 연구(예를 들면, 범죄과학연구소의 경찰청 2013 법제화 용역연구)도 활발히 수행될 필요가 있다.<sup>8)</sup> 또한 성능이 인증된 방법하드웨어를 사용한 주택의 침입범죄 발생률의 변화에 관한 연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연구라고 하겠다.

이와 관련, Wellsmith과 Birks(2008)는 영국 West Midlands주의 범죄 및 무질서 감소를 위한 협력관계(Crime and Disorder Reduction Partnership)에 의해 2002년부터 학계의 전문가와 현장실무자와의 협업으로 진행된 주 내 경찰서에서 범죄예방 사업(project)을 소개하고 있다. 범죄예방사업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출입문과 창문과 같은 방법하드웨어를 무료로 수리해주거나 개선을 시켜주는 사전 예방적인(proactive) 사업을 실시하여 사업을 실시한 지역과 실시하지 않은 지역에서 주거안 전조사를 실시하고 경찰범죄통계 분석을 통해 침입절도 범죄율을 비교하였는데, 사업 실시 업그레이드를 받은 지역의 피해율은 전체 지역의 피해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범죄예방 프로그램은 대상물 강화(target hardening)에 초점을 두어 상황적 범죄예방기법을 적용하는 것이었으며, Wellsmith과 Birks는 학계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간의 협업은 양쪽에게 모두 유익하였고 사업을 통해 정책당국과 이해관계자 등에게 실제 현상을 분석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증거에 기반한 정책(evidence-based policy)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안전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절감하고 이러한 사업을 담당부

7) 김효건, 문상철, 박윤규, 박현호(2014)는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방법문(security door) 실험연구를 수행한 바 있는데 이러한 연구가 향후 다양한 건자재 품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8) 일본에는 침입절도범죄의 도구를 휴대하거나 차량에 싣고 다니다가 경찰에 적발이 될 경우 충분한 이유가 소명이 되지 않으면 형법 상 절도의 예비죄로 처벌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침입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범죄 예방과 경감을 위해 그러한 일반 또는 특별 형법 상의 법 규정 정비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처와 전문가간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가 부럽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11월경에 건축물에 범죄예방 설계가 도입되는 건축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쟁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안전 관련 공약(公約)들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고 본 연구와 후속연구를 바탕으로 방법하드웨어 산업이 활성화되어 정부부처와 민간 전문가의 협업을 통한 각종 정책과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기를 기대해본다.

## 참고문헌

- 경찰청 (2013). 2012 경찰통계연보
- 강용길·조준택 (2010). 침입절도범의 행동분석을 통한 침입절도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제10권 제1호, pp.185~212
- 김대권 (2010). 침입절도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 민간경비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22호, pp.15~35
- 김효건, 문상철, 박윤규, 박현호 (2014). 주거침입범죄 방지를 위한 방법론 하드웨어의 성능기준 제정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예술포럼, Vol 15.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9-2013
- 박병식 (1997). 침입범죄와 주거안전: Security 교육 시론, 한국안전교육학회지 제1권 제1호
- 박현호 (2013). 방법하드웨어의 침입범죄 저항성능 시험·인증 체계에 관한 모형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36호, 255-292
- 범죄과학연구소 (2013). 방법인증제 국내 도입 모형 개발 및 법제화, 경찰청 용역연구보고서.
- 석청호 (2010). 협력치안체제 구축과 민간경비의 역할,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24호, pp.67~90
- 신재현 (2010). 침입절도에 대한 CPTED전략 적용방안, 한국경찰학회보 제12권 제2호, pp.167~192
- 이상원 (2005). 범죄예방론, 대명출판사
- 이상원·김상균 (2009). 공동주택 방법평가 지표개발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7호, pp.225~259
- 이상호 (2007). 강도범죄의 실태 및 대구지역 침입강도 범죄분석, 경북대학교 수사과학석사학위논문
- 주일엽·조광래 (2009).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과 시큐리티 시스템(Security System)간 연계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9호, pp.165~185
- 최응렬 (2006).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한국학술정보
- 최현식·박현호 (2010). CPTED 설계요소에 대한 공동주택 주민의 만족도 인식 : CPTED 적용수준별 집단과 거주기간, 범죄예방노력의 교호작용 효과,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22호, pp.231~258
- Clark, R. V., (1983).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 Its theoretical basis and practical scope", *Crime and Justice*, Vol. 225, pp. 225-256

- Cornish, D., & Clark, R. V., (2003). "Opportunities, precipitators and criminal decisions: A reply to Wortley's critique of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In M. Smith & C.B. Cornish(Eds.) *Theory for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Crime prevention studies*(Vol. 16, pp 41-96). Monsey, NY and Cullompton, Devon, UK: Criminal Justice Press, 2003
- Hummer, D., & Preston, P., (2006). "Target hardening the college campus through stakeholder input : merging community and the security survey", *Crime Prevention and Community Safety*, Vol. 8 No.2, pp. 118-136
- Wells, M., & Birks, D. J., (2008). "Research on target : A collaboration between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for a target hardening scheme", *International Review of Law Computers & Technology*, Vol. 22 No. 1-2, pp. 181-189
- Lab, S. P., (2004). (ed) *Crime Prevention*, New York: Anderson Publishing Co
- National Crime Prevention Institute, (1978). *The Practice of Crime Prevention*
- Newman, O., (1972). *Defensible space.- Crime prevention through urban design*. New York: MacMillian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4. 5. 27 "건축물 설계시 범죄예방기법을 반영하고, 소규모 주택도 층간소음 분쟁 해소 !"
- 머니투데이 2013. 8. 23자 기사 "3분만 버텨어도..." '방법' 안되는 허술한 방법창 [생명을 구하는 3분, 방법창-하] 방법창만 튼튼해도 강간 1,000건 예방 가능
- 뉴스1 2014. 5. 13자 기사, 興野 지방선거 공약 핵심은 '안전'
- 뉴스1 2014. 5. 11자 기사, 여야, 지방선거 10대 공약발표 ...세월호 대책 눈길

**【Abstract】**

**Study on the categorization of modus operandi  
and tools used in domestic burglary**

Park, Hyeon-Ho  
Cho, Joon-Tag

As the revision of Building Code including applying crime prevention design to buildings passed recently and target hardening ought to be evidence-based, we studied the Modus Operandi (MO) and intrusion tools of domestic burglary to earn basic data for improvement of crime prevention hardware in the future. To be specific, we reviewed related academic literature and police official statistics of domestic burglary critically and interviewed detectives in charge of burglary to specify and categorize MO and tools. We can derive some implications from research findings, including improvement of the statistical system for the MO of burglary, active sharing of the MO of burglary among the criminal justice agencies and related industries and experts. Also, crime prevention advice and education for the local residents focused on MO of burglary can be recommended. Based on this research, to enhance the level of community safety significantly, performance tests of crime prevention hardware such as security doors and windows etc. and the study on related certification system should be vitalized.

**Key words : burglary, modus operandi, intrusion tool, target hardening,  
CPTED**